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58호(구378호) 2008. 2. 10(격주간)

이재록 목사 초청 『2008년도 전국 기관장단 교육』 성료

주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자 (갈 5:16~17)**

무수한 영혼들이 물려와 부흥을 이룬 2008년, 하나님께서는 교구 및 교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주셨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열기가 뜨겁고 성도들의 각오는 대단하다.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교구의 구역장과 선교회의 기관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08년도 전국 기관장단 교육』(주최: 여선교회 총연합회)이 1월 31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본교회 및 전국 지교회 기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금번 교육은 일선에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 일하는 기관장단을



격려하며 영혼 갈무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항상 성령의 소욕을 좇아 승리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성결을 갈망하고 큰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수많은 성도가 함께한 금번 교육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희망찬 시간이었다.



‘인터넷 새교우 등록 사이트’ 전 세계에서 새교우 등록 증가



본교회에서는 GCN(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방송으로 위성 방송, 공중파 방송, 케이블,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전 세계 성도들이 각종 예배 및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노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파갈로그어, 우르드어로 동시통역되며, 본교회 부설 (주)만민 TV에서 제작한 문화예술, 간증 등의 선교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이에 따르는 표적과 함께 증거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말씀을 사모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등록 문의를 해왔다.

본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교우 등록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국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저희 나라는 베나지르 부토 전 수상 암살사고 이후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극단론자들은 122개의 은행과 32개의 전철역, 버스, 자가용, 석유 펌프 그리고 주유소와 가게들을 불태웠습니다. 국민들은 테러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 목사님이 방문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성회나 세미나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타르크 지아 목사
(지저스 에반젤리칼 만민교회 담임)

칼럼 아버지의 마음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흥년이 들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제서야 아들은 마음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때 아버지는 멀리서 밤낮 기다리던 아들을 발견했다. 달려가 아들을 와락 안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했다(눅 15:20-24).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겨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그 품에 안아 주시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글/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중인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 예배	1부/ 오전 10:00 2부/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블·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오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본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보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 협 100072-52-061722
우 체 국 012419-02-047269

준비된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일꾼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절실합니다. 누가복음 10:2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말씀한 대로 인간 경작이 끝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준비된 그릇이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해도 자원하는 사람마다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능력 있는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20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그릇의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한데 주인은 어떤 것을 골라 쓰셨습니까?

일단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용도에 맞는 그릇 중에서도 주인의 손에 잘 맞는 그릇이면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인의 손에 맞고 용도에 맞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용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각 분야에서 쓰임받기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자질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곧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를 쌓아야 하지요.

다음으로, 주인의 손에 맞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릇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큰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이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결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만큼 사명 감당할 능력이 더 받을 수 있고, 순종도 더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므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엡 6:12, 고전 4:20). 영적인 힘과 능력은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결되어 영적인 힘이 있는 일꾼들을 항상 찾으시는 것입니다.

2. 성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더딘 이유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뤄야 할 본분입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일꾼이라면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간절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준비만 하고 있을 뿐 왜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일까요? 나름대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노력한다 했는데 왜 그렇게 더디 이루는 것일까요?

첫째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결되고 싶지만 날날이 자신을 해부해 버리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결되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한다면 변화가 늦습니다. 어떤 죄와 악한 마음이 있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싫게 여겨져야 하지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근신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버려 나가면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모르고 있던 자신의 비진리를 발견한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했다고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들판에서 잡초를 뽑는다 해도 뿌리를 남겨두면 금방 다시 자랍니다. 죄성도 발견하여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의 죄성까지 뽑아야 하며, 다 뽑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발견되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 중에 큰 뿌리부터 먼저 뽑아야 합니다. 큰 뿌리가 뽑힐 때 많은 잔뿌리도 함께 뽑히지요. 자기 안에 가장 크고 버리기 어려운 것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에게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로 포장하여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와 틀을 깨지 못하므로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덮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한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일을 하다가 화평을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부딪힐 원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자기 의와 틀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했으니까, 화평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화평을 깨지 않는 마음이라면, 자기가 더 옳다 해도 상대의 마음에 맞춥니다. 비진리나 죄가 아니라면 먼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이것이 하고 싶기 때문에 윗사람이 “그러지 말라.” 해도 여전히 원하는 대로 하면서 윗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화평을 떠나서 기본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화평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화평하고 싶지만 상대에게 맞춰 줄 수는 없다.”고 변명만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아닌 말과 혀로만 원하는 것인데도 “나는 화평하려고 했다.”고 스스로를 좋게만 생각하므로 신속하게 성결을 이루지 못합니다.

2) 상대의 잘못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냉랭하게 되었지요. 이때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의 잘못만 생각합니다. 김 집사는 “이 집사님이 내 허물을 말했으니까 화평이 깨어진 것이다.” 합니다. 반면, 이 집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김 집사님이 속이 좁아서 화평이 깨어졌다.” 합니다.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녕 성결을 사모한다면 상대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백 가지 중에 아흔아홉은 상대의 잘못이고 하나만 자신의 잘못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자신에게서 비진리가 발견되어도 이것을 부인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권면했어도 속으로 감정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말했으면서도 ‘나는 사랑으로 말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감정 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끝까지 부인하지요. 이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루어 있다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감정이 없었다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권면했나?”, “상대의 입장을 살피지 못하고 말함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얻었을 때 순간이지만 낙심이 됩니다. 마음에서 시기 질투를 버리면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낙심했다면 내 안에 이런 비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해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얼른 돌이키고 나서 자기가 낙심한 것까지 부인합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노력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어떤 비진리가 드러났을 때 즉시 돌이켰다 해도 마음 근본을 인정하여 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같은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성결을 더디게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철저히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불같은 중심의 기도를 통해 발견되는 모든 비진리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인도의 나라 인도

성결 복음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다

한정희 선교사 (첸나이 만민교회 담임)



인도는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의 4대 종교의 발생지이며 약 3억 3천만 개의 우상을

가진 나라다. 국민의 약 82%가 믿는 힌두교는 흔히 생각하는 '종교' 라기보다는 생활방식에 가깝다. B.C 2천 년 경부터 형성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 속에 침투되어 힌두교인들은 우상에게 수시로 경배하며 살아간다.

기독교 인구는 약 3% 정도, 11억 전체 인구 중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GCN 방송, 성도들 믿음 성장의 원동력 총 298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

첸나이 만민교회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개척하였다. 당시 성도 수가 20여 명에 불과했으나 등록교인 200여 명으로 부흥했으며, 총 298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가 있다.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GCN(Global Christian Network: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 방송이다. 첸나이 만민교회는 서울 본교회 금요철야예배와 주일예배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다. 직접 화상(畫像)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니 질병의 치료와 마음의 소원 등 응답 받은 간증이 넘쳐난다. 성도들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며 성결을 사모하여 천국 새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한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문서선교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천국(상)하', '지옥' 등 대표적 저서가 영어, 타밀어로 출판되거나 준비 중이다. 출판된 저서들은 각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와 오엠 북(인도 최대의 기독교 출판사)의 도서 판매 전시회, 주요 도시 기독교서점 등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에게 보급된다.



WCDN 트리치 세미나

제2회 국제 기독교의학 컨퍼런스

또한 인도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 기독교의사 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은 인도 복음화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2005년 5월, 첸나이에서 있었던 <제2회 국제 기독교의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 이후 WCDN 사무실이 생기고 정식으로 운영됐다. '영성의학'이라는 주제로 세계 11개국에서 온 500여 명의 의료인이 모여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치유사례를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열매이다.

현재까지 인도 WCDN은 타밀나두 주의 나카코일 시와 트리치 시,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하이데라바드 시, 케랄라 주의 카람코람 의과대학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외에도 인도의 수도 뉴델리 시에서 세미나 준비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층을 위해서는 무료 진료캠프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마투스'(주님의 증인)라는 의료 계간지를 발행, 인도 및 아시아 주변국가 의사들에게 WCDN의 사역을 알리고 있다.



문서 선교와 WCDN 사역 활발 MIS 통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교회 중심의 선교사역

인도는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 이후 연방 중앙정부와 성회가 열렸던 타밀나두 주의 주정부가 기독교에 친화적인 정부로 바뀌었다. 이에 많은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성회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 정부를 위해 해주셨던 특별 기도와 현지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인도 곳곳에 많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존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힌두교인과 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의 33배 이상 큰 나라로 보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첸나이 트리니티 순복음교회에 초청받아 손수건기도(행 19:11~12) 하는 한정희 선교사

앞으로 첸나이 만민교회는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만민국제신학교(MIS) 통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교회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교사역을 펼칠 것이다.

첸나이 만민교회 청년, 다니엘

인도 연방 중앙정부 총리 '만모한 싱 상' 수상(受賞)



인도는 연방 중앙정부 아래 25개 주와 7개 직할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중앙정부 총리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의 이름으로 매년 1개 주(州)를 선정하여 15명의 최우수 성적 우수생을 뽑는다.

남인도 의과대학(South Indian Medical College)에 재학 중인 다니엘은 작년 12월, 기말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재학생 2천 명 중 최우수 성적 우수생으로 뽑혀 '만모한 싱' 상을 수상했다.

대학입학 후 가정불화와 가난으로 학업성적이 늘 하위권에 머물렀던 다니엘은 약 1년 전부터 첸나이 만민교회에 다녔다. 주일 성수는 물론 각종 예배에 참석하여 믿음을 가지니 가정 문제로 인한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공부에 집중한 결과, 상위권으로 올랐고 최우수 성적 우수생이 되었다.

다니엘은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인 청년으로 성전 음향 및 방송 장비 관리와 아동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웃집에 꽃힌 '만민중앙소식' 한 장

나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힘

| 강동호 집사 (한국 IBM 과장, 1-1남선교회 회장) |



나는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회사인 IBM에 입사했다. 그러나 평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었다.

불안 초조, 의욕 상실... 통제 불능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강동호 씨가 맡는 것이 어때?”

‘수십 명의 고객들 앞에서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한단 말인가?’

신개발 프로젝트 설명회를 내게 맡기는 선배의 말 한 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 데다가 무대 공포증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입사 초부터 무척 겁이 났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대중 앞에서 설득력 있는 발표는 필수이다. 그러나 나에게 단순한 부담을 넘어 압박관념에 시달리게 했다.

발표가 있기 30분 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약에 의지하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늘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었다.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쿵쿵거리고 집중이 안됐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도 귓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때때로 머릿속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신경정신과에서 몇 번의 진료를 받았지만 전혀 도움이 안됐다. 기(氣)를 신봉하는 단학선원을 비롯해 심지어는 무당굿도 해보았다. 증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무거운 돌을 몸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기분이었다. 더욱이 이명 증세까지 나타나 잠잘 때 빼고는 늘 귀에서 웅웅거렸다.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잠시 휴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회사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심사숙고 끝에 상사에게 휴직 의사를 내비치자 극구 만류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휴직하면 자네에게 큰 마이너스야.”

무척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루하루 꺾꾹 눌러 참았다.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만 갔다. 상황은 나아질 줄을 몰랐다. 현실인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동호야, 요즘 뭐하니? 이번 주 토요일에 과 동기들과 모임이 있는데...”

“어어, 미안하다. 내가 요즘에 바빠서...”

자연스레 인간관계도 끊겼다.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 다녀 보라는 권유를 했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다. 결국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이웃집에 꽃힌 '만민중앙소식' 한 장

2002년 4월 어느 날, 터벅터벅 집 근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이웃집에 꽃힌 '만민중앙소식' 지였다. 순간 웬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거렸다. 신문을 열른 호주머니에 챙겨 넣고 집에 돌아와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무안 단물, 치료의 역사... 뭔가 색다른 교회 같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얼마 후 출장으로 싱가포르 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나는 장시간 갇힌 공간에서 하늘을 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심한 불안 증세가 나타나 결국 탑승을 포기했다. 내 자신이 한심하여 눈물까지 쏟아졌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만민중앙소식' 지에 게재된 집 근처 강북 지성전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연결이 되었다. 나와 통화한 최금옥 전도사님은 곧바로 심방 예배까지 드려 주셨다. 고마운 일이었다. 얼마 후, 소속 가나안선교회의 김명숙 지도교사님과 상담하여 본교회에 등록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일요일로 기억한다.

말씀 들으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

한 주 후 나는 '제10회 이재록 목사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몰랐다. 절박한 내 심정을 눈물로 토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다.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색 질병을 치료받았다.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생사를 고민할 정도로 크게 보였던 불안 증세가 점점 작게 느껴졌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마치 카운슬러를 만난 것 같았다. 내 모습이 날날이 해부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적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들고 또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담대함이 생기면서 불안증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감사와 기쁨이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길을 걸을 때도 평만 보던 내 눈이 어느덧 하늘을 향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나는 이제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곤 한다. 컨설턴트(consultant)라는 직종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을 상대로 내부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해 주어야 한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건강이 필수다. 직업상 회의도 많고 대중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일도 많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늘 노심초사하던 내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상사와 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아 과장으로 승진했다.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다.

기도는 내 삶에 커다란 즐거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로 서울시내에서 3~4개월마다 고객회사를 바꿔가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일할 때면 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부터 찾는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30분쯤 기도하고 나면 충만해진다. 게다가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좋은 고객들을 만나는 축복도 받는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오직 한 분,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는 행복하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Table with 3 columns: Domestic Churches, Speci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Lists various churches and their addresses/phone numbers.